

Sony, LCD 패널 공급 AUO 선정

이르면 9월부터 공급받아 ... S-LCD 공급으로는 판매목표 달성 어려워

일본 Sony가 LCD-TV용 패널 조달을 위해 타이완의 AU Optronics를 공급기업으로 추가해 이르면 9월부터 패널을 공급받기로 했다고 6월14일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.

Sony는 삼성전자와 합작해 설립한 S-LCD의 공급량만으로는 2006년 LCD-TV 판매목표인 600만대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 공급기업으로 AUO를 추가 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.

한편, Sony는 <브라비아> 브랜드로 LCD-TV를 생산하고 있으며, 세계 점유율은 판매량 기준으로 4위, 매출 기준으로는 1위를 달리고 있다. (서울=연합뉴스 윤선희 기자) <저작권자(c)연합뉴스-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06/06/16>